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뺨발 구석이거나
썩은 물 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 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1. 시상 전개에 따라 이 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

1-2행	
3-10행	
11-16행	

2. 다음 구절을 중심으로 이 시에서 ‘봄’이 어떤 의미인지 말해보자.

-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3. 다음 표현에 나타난 형식상의 특징을 말해 보자.

-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4. 다음 표현에 나타난 형식상의 특징을 말해 보자.

-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참고자료

1960년대는 독재 정권에 항거하기 위한 4·19 혁명이 일어났으며, 민주 사회에 대한 열망을 좌절시킨 5·16 군사 정변이 있었던 시기이다. 이후 군사 정권 체제가 고착화 되고 산업화가 급속하게 전개되면서 민족 구성원 내부의 불평등과 갈등, 인간 소외 문제가 심화되었다. 점차 자유와 평등이 살아 있는 민주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학의 현실 참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도 하였다.